

# 시민 체감 못하는 광주시 청렴 정책...청렴체감도 최하등급

###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 '종합청렴도' 전남도와 3등급·보성군 3년 연속 '1등급'

광주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중간급인 3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청렴 도시 광주'를 구호로 내걸고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약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시민 공감형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청렴 체감도(5등급)와 청렴 노력도(2등급) 등을 반영한 종합

청렴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만 시청 업무 경험에 있는 민원인(시민)과 시청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등급 떨어진 5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청렴 체감도 5등급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전남도 역시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오른 3등급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선 보성군이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광주 자치구에

선 동·남·북·광산구가 3등급을, 광주 서구는 4등급을 기록했다.

전남 시 단위 기초단체에서는 순천시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양시·나주시·여수시는 3등급, 목포시는 4등급이었다.

전남 군 단위 기초단체에선 보성군 1등급, 강진군·담양군·완도군·진도군 2등급, 고흥군·구례군·신안군·장성군·해남군·화순군 3등급, 곡성군·영광군·영암군·장흥군 4등급 등이었다.

특히 전남 무안군은 지난해보다 2등급이, 함평군은 3등급이 떨어지면서 최하등급인 5등급에 이

를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시·도의회에선 전남도의회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1등급으로 체면치레를 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에 머물렀다.

기초구의회에선 광주 동구의회가 유일하게 종합 1등급에 등극했으며, 광주 남구의회 2등급, 광주 서구·광산구의회 3등급, 광주 북구의회 4등급 순이었다.

전남에선 보성군의회와 고흥군의회가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순천시의회는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남도교육청은 1등급 상향한 3등급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기록했다.

지역 공기업들은 광주교통공사(2등급), 전남개발공사(2등급), 광주도시공사(4등급) 등 지난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로기관 평가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전남대학교병원도 작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에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 5000여명) 등 30여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두 460개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전통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김영록(왼쪽에서 세번째) 전남지사는 19일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민생 안정대책을 소개하고 신속히 관련 예산을 집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 제공>

## 목포·순천대 '전남 국립의대 설립' 행보 본격화

### 이달말 통합 신청서 제출키로

탄핵 정국에도 전남 최대 현안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목포·순천대의 통합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 12일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통합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 도민 설명회를 열고 목포대와의 통합 일정·절차 등을 소개했다.

앞서, 목포대도 지난 11일 도민 설명회를 열고 통합 절차를 위한 행보를 계획대로 진행중이다.

양 대학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대학 구성원 대표 12명씩 24명으로 구성된 '대학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지난달 27일 출범한 뒤 매주 1-2회 통합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양 대학은 애초 계획대로 통합 신청서를 이달

말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전남 최대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통합대학이 글로벌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발표한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을 지속 건의하고 오는 2025년 1월 신설 예정인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중교통 반값' '광주G-패스' 새해부터 시행

###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어르신 50%·저소득층 64% 환급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주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가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으로 할인하고, K-패스와 연계해 청년 3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를 환급한다.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 구입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각각 100%, 50% 할인받는다.

다만 나주·담양·함평·장성 등 인접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는 광주시내에서 운행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할인은 1인 1카드 사용에 한해 적용된다. 1개의 카드로 여러 명이 탑승할 경우 카드 소지자 1명만 할인받고, 교통카드가 없는 나머지 인원은 할인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환급률은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세 이상) 50%,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64%다.

K-패스에 비해 청년은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을 20%에서 5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64%로 지원을 강화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최악의 예산난에도...광주시 "저출생 대책 포기못해"

### 출생 축하 50만원 지급...중기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광주시가 최악의 예산난 속에서도 출생 축하금 50만원 지급 등 저출생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19일 "2025년 출생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예산 281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광주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축하금(상생카드)을 지급한다.

임신 중 가사 부담을 줄여주는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삼삼오오 이웃 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 인력에게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아이돌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도 신설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령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